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멸망

(이사야 44:1~28)

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멸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멸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신론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지만 불신앙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지식으로 믿음의 활동을 근거로 진행되는 종교생활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폄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학자든 수학자든 이 세상에서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믿음은 불의함으로 판정받아 멸망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은 죄악 된 행위로 인해서 멸망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로 멸망 받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으되 구원받는 믿음이 있거나 멸망 받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1~8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가면 다른 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0절까지는 우상숭배의 헛됨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21~28절까지는 선민들의 죄를 도말하심과 선민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바사 왕 고레스의 출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궁극적인 해방자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앞선 내용들과 같이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이후의 일들이 예언됩니다. 이사야 당대로부터 치자면 100년 뒤의 일들입니다. 이사야가 BC.700년경에 예언활동을 했는데 남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BC.586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귀환하는 것이 BC.53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160여년 후에 이루어질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당대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사건에서 비유 될 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사야의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이나 2700년이나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포로귀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세상의 포로 된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귀환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도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죄의 노예와 포로 됨으로부터의 해방의 상징으로써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의 포로귀환은 단순히 죄의 노예나 포로 된 상태에서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 자체의 노예나 포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노예이자 포로가 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고 탈출입니다. 세상의 노예이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죄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신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출애굽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에서의 해방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신’이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즉 이것에 포로 된 상태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홉 계명과 모든 율법은 제1계명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청진기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나머지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내 마음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 삶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8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구절들에서는 참 신이신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는 말은 3절에서 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라는 말과 맥락이 같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목마름을 해결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입니다.
선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이유는 목마름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이 믿음을 배반합니다.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목마름의 문제는 참 신과 다른 신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마음의 공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공백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기 때문에 갈증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워질 때에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생겨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생겨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한 소망과 열망과 갈증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이 갈증의 부작용으로 불만 불안 걱정 근심 분노 질투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특정한 대상들을 첫 번째 자리에 담게 됩니

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대상들은 바뀌지만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자리에 담기는 세상의 가치들이 다른 신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관계하는 첫 번째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의 대상들은 첫 번째 자리에 종속됩니다. 마음에 담은 첫 번째 대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써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갈증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고려할 때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참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어를 동력으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이번에는 '오직 기쁨으로'라는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을 주는 대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어는 다소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나 원죄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원죄란 바로 다른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할 때에 마음의 공백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 믿음이 원죄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도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른 결과 죄가 발생합니다. 만족과 기쁨을 주는 구체적인 대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하게 된 돈 건강 자녀의 형통 같은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원죄는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믿고 세상이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을 붙잡고 포로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원죄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삶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쁨이 없는 세상을 향하고 기쁨이신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으로 얼마든지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빠진 사람은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면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채워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체질화 된 것이 다른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돈이 안 벌리는 것과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돈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초조는 원죄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자의 삶의 특성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지옥에 대해 갈증이 너무나 심한 곳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부자가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묘사된 지옥은 곧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갈증의 장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배우자를 닦달하게 됩니다. 이때에 배우자가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코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못하기에 배신감이 생겨나고 부부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다른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자녀는 무슨 짓을 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해결 될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돈이라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해결 될 수 없는 갈증입니다. 따라서 돈 버는 내내 지옥의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에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목회가 다른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가 부흥해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갈증만 남은 목회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목회하는 내내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다른 신은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취직 승진 결혼 건강 명품 등이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죄가 활성화 된 채로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지옥의 특성이기에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대로라면 어때야 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은 자가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것이 에덴의 부부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대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에덴

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미 채워진 마음으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경제활동의 현장이 에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 수와 상관없이 목회 현장이 에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원죄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멸망시키는 믿음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십계명중 둘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다른 신을 갖게 되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돈 건강 자녀의 형통 같은 것들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이고 우상입니다. 애초에 세상의 가치라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면 우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상은 섬기고자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종교의 신은 신을 섬기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된 신을 얻기 위하여 동원된 존재입니다.
돈을 다른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신 참 신인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혀놓고 돈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형통을 들여놓았다면 자녀가 신이 됩니다. 건강이든 목회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신격화가 되어 다른 신이 됩니다. 이 다른 신을 얻는 과정과 방법으로 우상이나 종교가 만들어지고 동원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신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신은 망상이다'라고 까지 말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1계명이 어겨질 때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셋째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마음에는 돈을 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게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셋째 계명에 이어서 나머지 계명 전체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러한 선민들의 죄 사함과 죄 도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고레스의 등장이 예견됩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라고 죄 사함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표 하는 존재로써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일이 잘되어야만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미워집니다. 그것을 먼저 성공한 자가 있다면 질투가 납니다.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믿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 지옥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원죄이고, 그 믿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붙잡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의 결과가 됩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에 일천 번씩이라도 내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구체적인 대상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갈증은 해소됩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채워지게 되고 만족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기쁨으로 취직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기르면 됩니다. 이러한 삶은 에덴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불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이 존재할 뿐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려 하느냐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멸망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이 기쁨이 되리라는 원죄와 그 믿음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붙잡는 죄가 하루에 일천 번이라도 죽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에덴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